

## 워싱턴 투표 개요 국민투표 90

투표 날짜: 2020년 11월 3일

**투표 제목 (투표용지에 표시될 내용):**

미국 입법부는 포괄적 성 건강 교육에 관한 집중적 대체 상원 법안 5395(ESSB 5395)를 통과시켰습니다.

이 법안은 학구들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제정된 주 표준과 일치하는 포괄적이고 나이에 맞는 성 건강 교육을 채택하거나 발전시키고,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생들을 해당 교육에서 면제할 것입니다.

이번 개헌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: [ ] 승인 [ ] 거부

**배경:**

현행법은 5-12학년 공립학교에서 에이즈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추가적인 성 건강 교육을 제공하는 학구들에서 과학적으로 정확한 교육과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현재 대다수의 학구에서 추가적인 성 건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

2019년도 예산안에는 워싱턴 학구들의 현행 관행과 함께 현행 K-12 학습기준 및 주법에서 성 건강 교육 조항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추진단을 소집하고 K-12 전 학년에 대한 포괄적 성 건강 교육 요구의 장점과 도전과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감실(OSPI)에 대한 자금 지원도 담겨있습니다.

업무추진단에는 학구 대표, 교장, 공립학교 보건교사, 공중위생 관리, 학부모 등 3명씩 포함되었습니다. 회의내용은 공개되었고, 10,000 명이 넘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과 관심사를 받아들였습니다.

ESSB 5395는 업무추진단의 권고를 바탕으로 2020년 초 주지사가 도입, 통과, 서명하였습니다. 이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서명 모임은 2020년 11월 투표에 나올 국민투표 90을 인증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. ESSB 5395를 거부하는 투표는 법률을 폐지하고 승인하는 투표는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.

**법안이 승인될 경우 제안된 개정안의 효과**

- 모든 공립학교는 2022-23학년도까지 모든 학생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나이에 맞는 의학적, 과학적으로 정확한 성 건강 교육을 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.

- 6-12학년의 경우 2021-22학년도에 성 건강 교육이 시작되며 학년별로 최소 2회 이상 교육이 요구됩니다.
- K-5학년의 경우 2022-23학년도부터 성 건강 교육이 시작되며 학년별로 1회 이상 교육이 요구됩니다.
- K-3학년의 경우, 교육과정은 사회 정서 학습에 대해 교육하여야 합니다. 성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.
- 4-12학년의 경우, 교육과정은 인간의 생리학적, 심리학적, 사회적 발달에 대한 나이에 맞는 교육, 긍정적 성적 합의와 방관자 연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건강하고 비 강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기술, 성교육 과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 및 자원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.
- 교육감실은 웹사이트에 건강 교육 학습 표준과 2005년 성 건강 지침을 준수하는 여러 교육과정을 제시할 것입니다. 학구들은 이러한 교육과정 중에서 선택하거나 자체로 개발할 수 있으며, 이는 주 지침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.
- 교육과정은 교육 전에 학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하며, 학부모들은 서면 요청으로 자녀가 교육에서 면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.

#### 지지자들의 주장:

지지자들은 양질의 성 건강 교육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성병 감염을 초래하는 위험한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. 성행위에 앞서 개인적 한계와 성적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젊은이들에게 필요하며 성 소수자(LGBTQ) 청소년은 자신이 성 건강 교육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볼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들은 또한 어린아이들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들은 이 법안의 언어가 성 건강 교육을 관련 없는 다른 교과과정에 섞으려는 입법 의도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

#### 반대자들의 주장:

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에이즈 교육을 넘어서 성 건강 교육이 제공될 것인지 어떤 학년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지역 학구에 넘기는 것을 거부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. 그들은 극단적인 교과과정과 상세한 성 건강 교육이 초등학교에서도 의무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들은 성 건강 교육이 관련 없는 다른 교과과정에 섞일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.